

11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 반대를 위한 전여대협 전국 동시다발 수요집회

연세 : 4월 26일

1. 들어가며

10여년 동안 전여대협의 투쟁의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 해외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까지 더해져 많은 성과를 내왔습니다. 3월 1일 400차 수요집회를 맞아 힘찬 투쟁을 벌여낸 것이나, 학생법정 및 국제 전범 법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는 계속되고 있고 일본문화 개방이 3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한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여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원한에 찬 절규의 함성과 손짓을 더는 이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2. 의의 목표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자리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학우들의 실천적인 투쟁의 공간을 만드는 자리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공개하고, 저지 파탄시키는 투쟁의 자리 · 2000년 학생법정을 준비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자리

3. 의의화

①내용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선전
-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에 대하여 선전 (제출되었었던 교양 자료 참조) · 2000년 학생법정 선전-내용 및 일정, 장소 등
- 학생법정 대중적인 참가단 모집 선전/ · 학생법정 장소로 가져올 선전물 만들기

②방도

- 강의실 선전-대표자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선전합시다. -1일 3강의실 선전을 진행합시다.
- 화장실 선전
- 현수막-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일본 반대의 내용으로 -수요집회 참가의 내용으로 -학생법정 참가 내용으로
- 대자보
- 학내 거점 만들기
- 사진전

4. 조직화

- 학교 자체의 조직화 목표를 꼭 수립합시다./ · 대중적인 집회 참가 조직/ · 대의체계 통해서

5. 대중실천활동 다양한 방도로 더 고민하세요!!

- 할머니들께 편지 쓰기
- 손도장 찍기-학생법정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아래에 각 대학 총여학생회 적어서.
- 서명운동
- 학우들과 함께 학 접기-학생법정을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학을 통해서 학생법정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2천년 성노예 전범 학생법정 전여대협 참가지침

연차 : 4월 28~29일

1. 들어가며

사라진 위로패

유치원에 다니는 박두리 할머니의 손자는 이제 제법 한글도 읽는다.

장신대 할머니들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광주 군수님의 배려가 있어 나눔의 집 할머니들 모두가 '광주 군민의 날'을 맞아 위로패를 받으셨는데, 글이 어두운 할머니는 상패를 TV 위에 놓아두었다가 손자가 온 김에 깔을 꺼내셨다.

"어게 무슨 뜻이? 읽어볼래?"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신..... 할머니!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수모'가 뭔데?"

박 할머니는 머뭇거리신다. 혹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알까 걱정이 되시는가 보다.

"우리는 말이야. 옛날에.....일본놈들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나눔의 집에 와 있는데?"

"(일본장부로부터) 동 탈고 사죄받아내려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TV 앞에 놓인 위로패를 어디론가 치우셨다.

우리는 잘 사는 거야

필리핀에서 5박 6일 동안의 일정으로 제 3회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하고 일행이 돌아오는 날이었다.

설사애다 감기까지 겹쳐 저승길 못지않은 여행 아닌 여행을 다친 정대협 식구들과는 달리 어렵게 살고 있는 필리핀 할머니께 입던 옷 벗어주고, 채 가지지 않은 꽃샘추위에도 이랑곳하지 않고 얇은 깔치마만 입고 공항에 도착한 김 순숙 할머니.

모두 태산같이 걱정을 하였으나 장작 김 할머니의 걱정은 따로 있었다.

"우리는 잘 사는 거야. 필리핀 할머니에 비하면....."

글 쓴이 혜진 「나, 내일 대모 간디이」 중에서

2. 의의 목표

- 학생법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지며 국제 전범법정을 준비해가는 흐름을 만드는 자리
- 전국 동시다발 수요집회를 총화하는 자리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중간 총화하고 이후 투쟁을 상승 고조시키는 자리

3. 의식화

- 학내를 학생법정이 실시된 그 학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대중적인 참가단 모집 선전
- 26일 학내 수요집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
- 26일 수요집회를 총화하는 선전

4. 조직화

- 학교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조직합니다.
- 대중적인 참가단 조직
- 전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표단 형식으로

5. 학생법정 장소로 가지고 올 것들-이대를 투쟁의 장으로

내용-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 해결의 내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없는 일본놈들 몰아내지의 내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책없는 김대중 정권 퇴진의 내용 -반여성정권 김대중 정권 퇴진 내용
현수막-각 대학별 1개 이상.
대자보
피켓
소자보
참가비 : 차비-식비+약간 더(자료준비)

6. 대중 실천 활동

- 위안부 선전전
- 서명운동
- 학내 선전
- 소자보 붙이기(붙일 것 함께 준비)

7. 행사 판 흐름

일정 : 4월 28일(금)~29일(토)
장소 : 이화대학교 중강당
역사 기행단 : 4월 30일~5월 4일(한일 대학생).

8. 전여대협은 이렇게 도입시다.

28일

3시 이대로 집결-확인, 학내 및 교문 앞 선전

5시 행사 결합

11시 수요집회 총화 자리 및 결의대회

29일

6시 일어나서

11시 시간/날짜

11시 4월 28일(금)

11시 4월 29일(토)

11시 오전

11시

17:00-개막식(다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말한다.)

18:30~19:00-휴식(간단한

벽거리 판매)

19:00~20:30 개막연극공연

● 품격 친화(사서 1호)

11 | 10:00 30년전 진혼

1호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집조 기록

자와 피해사적은 중심으로)

12:00 점심 식사

13:00 3회기 (대안자들과 50년전 참전)

14:00 관결

15:00 오후

16 | 페리식 1부 (대안자들과)

15:00 할머니들과 이월날의 마당

페리식 2부 (참가자위원 평가 및 결의)

16:30 결의의 시간 (참가자 성명서 낭독)

17:30 폐회 및 부활의

17 | 상설행사

18 | 상설행사 (월 25일 ~ 29일까지 이대 설치)

여성역사의 거리 (위안소 설치, 역사 및 활동기진, 참가 학교별 홍보부스, 조각그림 전시품 설치, 대형결계 그림, 손
도장 찍기 : 호강빌딩 행사장 앞내 설치)

여성의 역사 쓰기 (월드 피인팅, 할머니께 편지쓰기, 일일웃집) 영상물 상영 (이대방탈이 많이 다니는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로 설치)

19 | 7기 아침 선전 활동

9시 아침 먹기

10시 행사 결함

5시 30분 전이대환 차원의 정리 회의대회

집으로

20 | 한국과 일본화상이 합P 떠나는 역사기행 역사 기행단을 모집합니다 : 법정 참가자 중에서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21 | 테마 1 : 한국과 일본의 미정산 과제 : 역사를 중심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코스 :
나눔의 집, 서대문 형무소, 독립기념관 방문

22 | 테마 2 : 여성운동의 역사 :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현재적 의미 코스 : 수유사위, 금오사위, 봉두천 (지촌
주변 소요산 등반), 여성단체 방문 *위 일정은 일본측 참가단의 체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 |

24 |

민족사적 조현기를 개최하는

6기 전국이대상대포기협의회

6기 전여대협 의장 후보 등록일이 15일 저녁 6시까지 민족 조선대학교에서 있었 습니다. 전여대협 의장 후보로 등 록하려면 전체 대표자의 3분의 10'상의 추천서 와 사진, 결의서의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면 됩니다.

6기 전여대협 의장 후보로는 전여대협 임시의장으로 활동하셨던 우정숙 민족전 남대 참여학생회장님이 후보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기 전여대협 의장 후보

약력

77년 전북 익산 출생

96년 전북 이리여고 졸업

민족 전남대학교 공대 환경공학과 입학

과소모임 '푸르메' 활동

공대 운동과 '겨레의 이름으로' 활동

98년 환경공학과 학생회장

99년 15대 참여학생회 부회장

00년 전남대학교 참여학생회장

6기 전여대협 임시의장으로 활동

전여대협 임시의장 결의글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2천만 여성민중의 등대지기 6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결의하며

제가 여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마 이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성으로 살면서 여성문제를 고민해보지 않았더라는 것은 행피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때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때 우리는 그 삶 자체를 바꾸어내야 합니다. 여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문제를 고민해야한다는 것, 그것은 여성문제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여성으로 살아가기에 여성문제는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 그 태어남에서 부터 지게되는 온갖 자체에 대한 당연한 거부에서부터 여성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그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억압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때부터인지 개인의, 몇몇 집단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른 나라를, 사람들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제가 시작되고, 봉건제가 형성되었으 며,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거기에 한층 더한 억압의 고리들을 제 요소마다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의 전부에 저항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이것을 50만 여학우 대중과 2천만 여성민중과 함께 하겠다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4천만 민중 속에 녹아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한미군 범죄 속에서 여성민중들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 려우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400차를 넘기며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결의 기미는 없이 망발만 있 을 뿐입니다. IMF 이후 여성노동자들은 생존권을 빼앗기고 여성농민들은 농촌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여성으 로서의 삶이 더욱 고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대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비노동자·농민으로서 갈 길은 참으로 막달 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에 덧붙여갓가지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들. 투쟁하는 공간에서, 일하는 사업장에 서, 공부하는 학원에 이르기까지. 형태도 다양하게 성매매로, 강간으로, 희롱으로, 폭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데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화살만행 전여대협 특우를 건설하 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 올해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성폭력을 막아내자는 공동대책위를 건설하여 우

리의 투쟁으로 불과해나감시다.

숨바귀는 알아주지 않아도 피어나고 아름답다 말든지 않아도 제 빛을 발하듯이 우리를 또한 언제나 투쟁하며 제 뜻을 다 해내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결의와 각오로 살아가겠습니다. 투쟁 속에서 건설해내고 투쟁 속에서 위용을 펼쳐내고 있는 전여대협을 전여대협 담게 만들어가고 50만 여학우대중과 2천만 여성민중과 함께 올 1년을, 평생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6기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하며

6기 전여대협 일시의장

민족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우정숙

6기 전여대협 선거관리위원회

전여대협 총회 의식화 자료집

0. 전여대협이란

1. 전여대협의 역사
 2. 전여대협은 어떤 일을 하지요
 3. 2000년 전여대협은 무엇을 하지요
1. 전여대협 총회 3분 3남

0. 전여대협이란?

전여대협은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와 준말로 전국의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 로 구성된 협의기구입니다. 전여대협은 여성으로서 살아야 할 권리와 분배로 나서는 불 건적인 넓은 사상과 자본주의의 성차별적 지배논리를 타도하고 여성의 자주적인 힘으로 남녀평등 인간해방이 될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은 50만 여학우를 대중으로 하는 조직답게 각 지역별 지구별 대학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악하지만 과거부나 소모임 과여학생회에 여학우들이 망라되고 이것이 단 대 여학생회로 묶여지며 또한 한 대학을 아우르는 총 여학생회로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별 지역별로 지구여대협, 지역여대협을 만들게 되고 전국조직인 전여 대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여대협 산하에는 30여개의 총여학생회가 가입되어 있고 지역여대협 은 5곳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1. 전여대협의 역사

태운에서부터는 약 20여년, 전여대협 12년의 역사는 여학생운동 전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천년 새로운세기 새천년의 여성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간 어떻게 선배들에 의하여 빛나는 투쟁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누리 른 사소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피땀흘린 숭고한 희생과 노력을 겸허하게 돌아보 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일 것 입니다.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의 상황

70년 후반에서 80년 초기의 시기

이시기는 여학생운동이 태동하고 전 대학에 여학생운동 조직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독자적인 여학생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70년대 후반에서부터입니다 78, 79년 당시 의 학생운동은 유신치하에서 비밀 스텔게 유지되던 이론과 언더사회과학 학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보안을 생명으로 하던 지하 사회과학 학회는 여학생들에게는 철저한 금단의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학생수가 적은 학 교라는 탓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여학생들이 학생운동이 직접 그리고 전면 적 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학생이 감옥에 가면 약혼 자를 빙자하여 감옥 뒷타라지를 하는 것이 여학생 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를대로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사회과학 학회의 닫혀진 문은 커다란 충격이자 좌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학회의 분위기를 터린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엄격한 실천을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남자가 할게 있으면 분위기가 풀어져 학회의 장래를 망치고 만다는게 여학생 들을 받아들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학회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수없는 좌절과 모멸을 겪어야 했 던 몇몇 여학생들의 주도하에 학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진보적 이라는 학생운동권에서 가장 후진적인 남녀차별 행태를 밟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제법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쪽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주제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학생들의 의식은 더 단단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허심탄화하게 토론하고 역할을 맡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은 진정으로 사회적 의식과 자 신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녀차별의 이데올로기는 다만 남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 입생들은 남녀혼성씨름은 선호하고 여학생학회에는

개하기를 꺼리고 남학생들의 비방에서 여학생들이 가입을 꺼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급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모순을 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과 민족민주운동내부에서 공동의적에 대해 투쟁하면서도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남성들의 보수반동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보는 분열주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문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를 펴내는 등 여학생학회의 좁은 틀로는 수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단과대학 여학생회로 포괄해 내면서 여학생들의 입지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학생운동에서 나쁜대로의 몫을 해내던 서 82년 이후 점차 학회들이 여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참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졌고 오히려 군대문제등으로 인한 단절이 없어서 여학생들을 선호하기도 하였습니다.

84년 이후 학원자율화조치로 대중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1대 총여학 생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후의 활동은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투쟁 을 여회단위로 참여하는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또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특보이 여성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등을 통하여 사회적 여론을 서울지역 여대생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전여대협 건준위 이전의 여학생운동은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보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간부들의 모습은 여성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주체 의 결의가 매우 높았고 변혁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 나가려는 의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내에서의 여러 이해 부족과 소수의 선진적인 활동가들이 중심인 것, 아직도 여성운동에 대한 이론들의 부족한 정립으로 인한 나서는 한 계가 있었습니다.

86년에서 88년까지

여학생운동의 내용성을 확대하는 시기입니다.

비합법 씨클주의 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 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당시의 주요한 구호로는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재타도등이었는데 여학생들은 모성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족법 개정등 민주헌법에 담겨져야 할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투쟁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미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북한 의 실상에 관한 관심이 선진적인 학생들 사이에서 높아지게 되고 반북의식을 깨 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역사와 전통, 대중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러한 군부독재와 변혁운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86년 여름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여학간부 들이 구속되어 남아있는 간 부들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단을 하고 투쟁주체를 세워냈으며 서울대, 고대, 성 대를 중심으로 공동 대책의 를 세워 학내 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부천 검찰청에 농성과 방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속에서 여학생들의 화 열병 투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중적 토대에서 전개되 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쟁으로 끝나고 말았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운동 또한 연대운동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교훈 속에서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 자 협의회가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88년 하반기에는 올림픽 반대투쟁에 결합하여 매춘올림픽 반대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미국내 에 잡지의 한국인 모독 기사에 분개한 재미교포의편지가 오면서 여대협, 여성단 체들이 공동의 투쟁을 벌였고 주한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에 이즈 추방운동을 벌였 습니다.

87년 이후에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대해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여 학생회 건설이 형식적인 선거를 치루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대 중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학우들 속에 뿌리박는 것이 그 첫 출발이라는 깨저린 교 훈을 통해 대중화의 특 소 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88년에는 이러한 87년 여. 학생운동의 대중화 논의속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기층 여학생회 건설 논의 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규모의 학습모임에서 학우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 고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실천활동을 강화했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모습이고 여학생회의 활동을 강화하였다는 것 또한 진일보한 모습이었으며 여학생회 활동 이 확산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자주성에 기반한 사업 을 벌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사와 실무로 그쳐 버리고 오히려 형성되 기 시작하는 대중의 모임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였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89년부터 92년 말까지

이시기는 여학생운동의 내용적 강화와 조직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내고자 주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드디어 전국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평양축전을 계기로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약 70여명이 모여서 전여 대협 건준위를 구성하고 평양축전에 제 7센터에 참여 및 150여명의 민족통일여학 생단을 조직하여 선전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기간에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여학 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여학생 운동의 성장으로 자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킬

권력과 조직검찰에 주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88년은 전여대협 건주위 결성이라는 고무적인 분의기속에서 여성 자주화의 이념이 확산되고 사람중심의 조직관이 제기되면서 대중운동을 통한 여학생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89년 취업차별 철폐투쟁은 정치투쟁중심의 선전투쟁의 편향을 극복하고 대중적인 이해와 요구를 모아보려는 모범적인 투쟁이었으나 상층과 기층이 취약한 상태에서 여학우대중과 함께 벌여내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89년 이후에는 기간의 다양한 실천과 투쟁속에서 얻어진 한계와 성과들을 통해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대중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라는 명제가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88년 89년을 거쳐 여학생운동의 조직적인 성과물로서 각 지역 참여학생회 연대기구인 지역여대협이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대협은 지역차원으로 여학생운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자 출발하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체학생운동속에서 변혁운동의 3대 주력군 운동이 운동의 근거지로부터 강화해나가기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학생운동은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을 이루는 것을 조직적인 과제로 삼는 자주적 학생회 건설의 새로운 가치를 들게 됩니다. 자주적 학생회노선에 기반하면서 여학생운동에서도 자주적 학생회를 더욱 풍부히 고민하는 자주적 여학생회노선이 제기됩니다. 학생운동 전 단계으로는 기층과 사업단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여학생운동속에서도 대중노선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학생회 모임이 다양하게 건설되면서 의식화의 내용도 이전의 관성적인 사회과학 학습의주만이 아니라 여학우들끼리 하여금 식민지 여성으로서 자기존재를 인식하고 여학생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92년은 보은 진관투쟁은 많은 여학우들의 분노에 기반해서 여학생회가 여학우들과 함께 끈질기게 투쟁을 벌였던 여학생운동사에서는 큰 획을 긋는 시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보은 진관 무죄석방투쟁이 처음에는 무죄석방과 성폭력특별법 제정, 그리고 5월에 들어서면서 성폭력 없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7월에 들어서면서 성폭력의 근원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바뀌어 가면서 정세적인 투쟁의 과제로 옮겨져 갔으나 많은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92년도 유금이씨 투쟁과 서여대협 차원의 기지촌 활동은 우리 여성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식민지 분단조국이라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구체적 현실로써 느낄 수 있는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학생운동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당의적인 과제로 세우면서도 그것을 자기 내용으로 받아안고 있지 못하였으나 유금이씨 투쟁속에서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반미자주통일 투쟁을 여학생운동의 과제로 삼게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이 시기에는 그동안 계속 여학일꾼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던 자주적 여학생회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시기입니다. 93년에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일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4대 대선패배이후 결과에서 나타난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성과와 한계를 총화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전개해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93년 제기되는 총적인 과제는 대중의식화를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대중조직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국내외적인 정세속에서 학생운동 또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고 학우들의 자주적인 삶을 높여주고 진정 학우들이 만들어가는 대중 자치공간으로써의 학생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지한 모색속에서 전대협의 전통을 계승혁신하는데 백만청춘의 조직으로써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총적 가치로 내걸게 되는데 제 1기 한총련이 건설되게 되었고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철저히 학우들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가치를 들고 생활, 학문, 투쟁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부문의 계열운동의 강화의 한복소리가 전체운동속에서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94년 제 2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제6기 전여대협(전)이 정식으로 한총련에 가입하게 되고 한총련 내부에서도 부계운동강화소위를 구성하여 이전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진일보하여 부계운동을 내용적으로 지도하고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양재리 학우 구명운동을 펼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크게 투쟁하였습니다.

여학생회 자체에서도 자주적 여학생회론의 구체적인 정립,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좌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활발해지고 6년 동안 전여대협 투쟁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전여대협의 건설의 가치를 높게 들게 됩니다.

95년에는 전여대협 총회를 통해서 전여대협을 건설하고 통일선봉대를 조직하여 7,8월의 통일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모았으며 통일투쟁의 일환으로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 산하에 여학생회조직과 자주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96년말부터 99년까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여학생운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시기입니다.

96년, 97년은 김영삼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민중들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정권에 항거하는 투쟁이 거세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김영삼정권은 파소폭입기구를 동원하여 한총련 씨발리가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

96년 여름 연대항쟁때 사상유례가 없는 물리적, 사상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하여 수천명의 통일투쟁에 참가한 학우들을 강제 연행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빨갱이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97년 헌총련 출범식을 계기점으로하여 한총련 탄압을 종용, 한총련 대의원인 핵심들을 연행하였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만들어 그이후까지 계속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운동단위는 96년 연세대 항쟁가운데서 탄생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진상 규명 책임자처벌투쟁을 법적 투쟁과 여론화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냈고 당시 김 영삼 정권을 반여성,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김영삼 정권을 조기타도 하는 투쟁에 최선봉에서 완강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이속에서 여학생운동을 하는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은 한총련 대의원으로수 배와 구속을 받게 되었고 학생운동의 어려움 속에서 여학단위뿐 아니라 전체 학생운동단위까지 책임져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97년 학생운동에 불어닥 친 탄압과 여러 어려움들은 핵심의 구속, 학생운동에 대한 대역론적인 반감등으로 학생운동의 악화를 가져오게되는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전체 운동의 악화속에서 여학생단위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고 조직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상당히 컸고 전여대협 의장을 비롯한 핵심들의 구속으로 반년이상 공백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시기가 그저 시련과 피해로만 점철된 것은 아닙니다. 학생운동단위의 어려움속에서 전체 운동까지 책임지면서 운동의 핵심으로서 단련된 많은 여학일꾼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여학생운동의 변혁운동적 성격을 확고하게 한 계기였으며 많은 사상적 혼란속에서 굳건히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핵심들을 중심으로 다시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과제를 도출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대협과 전여대협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부계단위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전여대협만은 굳건히 자리자리를 지키고 전여대협 총회의 출범식, 통일선봉대를 꾸준히 치루어 왔으며 중상회의등 전여대협 회의구조또한 안정화시켜 나갔습니다.

이기순, 허주연 신차금 전지나 이정숙씨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에 선봉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에 있어서 300차 400차 수 요시위를 성사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중화, 전국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고 자주교류 및 연대사업도한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기반의 열세는 꾸준히 극복해야하는 과제로 남아있고 역량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후 전여대협을 대중조직단계 세 워내기위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내야 한다.

큰 투쟁의 흐름으로

89년 건준위 1기부터 95년 출범후 6기까지의 전여대협의 역사를 짚어보자 87년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발족 이후 각 지역 여대협 발족 88년 매춘 올림픽 반대 투쟁,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애이즈 추방운동 89년 평양축전 제 7센터 참여 및 민족 통일 여학생 단 조직, 활동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준비위원회 결성

90, 91년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 취업차별철폐투쟁, 지속적 지역 교류 사업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 93년 윤금이씨 살해 미군 처벌 투쟁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공동 발족

94년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 전여대협 2기 통일선봉대 활동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에 가입

95년 1기 전여대협 의장 박경희 (경희대 총여학생회장) 제1기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전여대협 3기 통일선봉대 활동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성폭력 상담 요원학교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전개

이북과의 첫 자주교류 시작

96년 2기 전여대협 의장 김유경 (경성대 총여학생회장)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9수요집회 전국 집중 투쟁,

4기 전여대협 통일 선봉대 활동

97년 3기 전여대협 의장 김정숙(동아대 총여학생회장)
공권력이 의한 성추행 근절 투쟁
반여성정권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 투쟁

98년 4기 전여대협 의장 장은영(경북대 총여학생회장)
IMF바다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투쟁
300차 수은집회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99년 5기 전여대협 의장 최선영(경기대 총여학생회장)
주한미군 철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3차 연대 해결 투쟁
3'19용산비군기지 앞 항의시위
전여대협 기지촌 활동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2. 전여대협은 어떤 활동을 하나?

전여대협의 강령

- (1) 여성의 성차별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 (2) 이천만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 (3)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조국을 통 일한다.
- (4)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성차별적 교육과 제도를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 를 쟁취하여 학원자주화를 이룩한다.
- (5)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저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투쟁한다.
- (6)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 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 (7)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증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8) 백만 청년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3. 2천년 전여대협은 어떤 활동을 할 건가요

전여대협 10대과제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하고 주한미군 철거시키자.

올해만 해도 벌써 2명의 기지촌 여성이 살해되었다. 여성민중의 살 길을 차단하 여 기지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다니 주한미군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에 손 하나 꿈쩍 않고 있다. 기지촌 여성의 죽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이 땅에 퇴폐·향락 문화를 들여놓았으며 성의 상품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더군다나 여성민중을 강간, 폭행 등 노리개인양 취급하고 저 성이 차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목숨을 짓밟았다. 그리고 올해는 2번째나 기지촌여성 이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처벌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한미군 철거에 앞장서야 한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일본에 대해 명확히 사죄·배상을 촉구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적·계급적·성적·인종적 억압이 모두 극명하게 드러 나 있는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가 50여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 나 50여년동안 위안부였음을 숨기고 살아갈 수 밖에 없도록 했으며 또는 생을 자포자기하고 매춘여성, 기지촌여성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가부장적 요소가 이 사회에서 너무나 팽배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급히 해결할 것이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조장, 유포하는 사회구조 및 일본놈들에 대한 사죄, 배상 뿐 만 아니라 더 이상 일본놈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IMF 이후 여성에 대한 억압은 더욱 극명해졌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여성의 본업은 '가정'이다 라느니, 남성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 여성 정리해고가 우 선이지 않겠느니 하며 여성에 대한 2중 억압, 고통의 굴레를 더욱 덧씌워왔다.

여성 또한 명백한 이 사회의 주체이며, 구성원이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자 본 가가 책임져야 할 가사노동은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 여 여성에게는 2중의 고통 을 자본가 및 기득권에게는 2배의 이득을 갖게하는 이 사회구조 철폐, IMF 협약 철회시키고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4. 신자유주의와 WTO 반대하고 여성농민의 삶을 보장하라.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계속 늘어가는 농가부채에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농민들의 수 또한 그에 비례하여 늘 어나고 있다. IMF에다가 신자유주의와 WTO까지 농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만 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존 권 또한 보장되지 않는 농가가 많고 더군다나 가장 가 부장적인 요소가 큰 계층이어서 여성농민들은 몇 겹의 이중과 차별을 받고 있다. 자주농업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신자유주의와 WTO를 반대하고 여성 농민의 삶을 보장하고 여성농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상수를 위 해서 힘쓴다.

5. 매매춘을 근절하고 매매춘 여성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라.

매매춘은 명백하게 사회구조상 여성이 어쩔 수 없이 택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책임은 생각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니 하며 매매춘 여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의 삶을 외면하는 잘못된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공장제도 입법화를 운운하며 공공연하게 부추기까지 하였다. 지금도 감감자 서장을 앞세워 마성년 매매춘을 단 속하고 있지만 그 또한 근 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다. 미성년 매매춘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는 것이며 또한 단속 이후 그런 생활 을 하게 된 여성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는가 하는 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투쟁한다

6. 군복무간접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국통일 앞당기자.

작년 말 떠들썩하게 했던 군복무간접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이것을 성의 대결로 만들어가면서 결국 다시 군복무간접제를 인정케버 린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조 국의 분단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사회 차별이고,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할 것 이지 직업에 대한 기회균 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 균등한 역할이 아닌 소 극, 차등의 의치로 규정짓고 사회화과정에서부터 고쳐나 가야 한다. 교육, 언론, 대중 매체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쳐나가 야 한다. 군복무간접제 또한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군복무간접제 폐지하고 저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조 치를 요구하며 본질적 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도록 하는데 앞장서야한다.

7. 제도적으로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을 위한 이 북과의 자주교류를 펼쳐낸다.

분단으로 인해 이 땅은 군사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성은 사회의 주 체이기보다는 객체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이남 당국이 이러한 정책적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시급히 이룩하는 것이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작년에 우리는 남북 노동자 촉구대회며, 수많은 만남을 시도해왔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은 거의 무력화된 것이나 미찬가지 인 법이 되었다. 올해는 남과 북의 그러한 계획들이 더 많이 쪼여져 있다. 어디 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식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창구를 통한 것으로만이 아 니라 누구나 통일을 위한 다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조국 분단 을 영구화하는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각 대학별 지역별 여학우들의 자주교류를 광범위하게 펼쳐낸다

8.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그냥둘수 없다

수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성에 대한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 디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많은 성폭력 범죄를 발생시 키는 요인 중 큰 부분이다.

성폭력 방지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성폭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각 지역, 단체에서 성폭력 방지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

학내에서 또한 미찬가지이다. 교수, 교직원, 외부인,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 력을 방지하도록 예방과 처벌 차원의 성폭력 금지 학 칙을 제정하도록 교육부, 대 학당국에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9. 여성 대학 졸업자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예전에 비해 고학력의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의 기회나 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지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 이후 또다시 좋은 데로 시집가려던 혹은 대학이라도 나와야 하는 식으로 여성을 교육의 소비자만 전락시켜버린다. 여성의 실업률 가운데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은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이다. 대부분 이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들이 많은 데 이를 보더라도 여대생의 고용현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여학우 대를생들 소비의 주체가 아닌 생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대학교육과 인식 및 고용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10.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선봉장으로 한총련을 적극 지지하며 한총련 비판확대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4. 전여대협 3문 3답

1. 전여대협은 여학생운동하는 사람들만의 조직인가요 전여대협은 여학생회간부들만의 조직이 아닙니다 전여대협은 50만 여학우를 대변으로하는 대중조직으로서 전체 여학우모두의 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의 대표자인 총여학생회장님들이 자기 자기 대학 여학우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하여 여 이를 대표하여 활동하시는 것이지요

2. 전여대협사업에 남학우들이나 여학생회이외의 학생회 일꾼들도 참여해야하나요

전여대협이 여학우들의 대표체이다보니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여대협 투쟁과 사업은 여학우들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 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살펴보면 여성문제라는 것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부지 불식간에 콰어 익혀온 남녀차별적인 습관 때문에 생긴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통의 과제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남녀모두 함께 하여야 할 것 이며 특히 남학우들은 여학생회 사업에 자주참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넓은 사상적 잠재을 갈끔히 없애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전여대협에서 하는 사업이 한총련에서 하는 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성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얻는 절대적 이득과 함께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낮춤으로 남성의 임금까지 감소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인 식속에서 가사업과 육아를 떠맡겨 무상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있다.

이러하다보니 투쟁과제 가운데 한총련과 함께 할 것을 과감히 함께 들어가는 것 은 당연한 귀결입니다.